

No.5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0. 22 ~ 10. 26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Japan Weekly Digest (No.5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- 한국 전기자동차 일본 진출
- 포스코, 토요타자동차에서 전시회 개최
- 日, EU와 FTA 조기체결 추진
- 한국 D램 `치킨게임` 완승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황장엽 전 서기관, 일본 방문 허가
- 日, 北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처리
- `세계경제 더블 딥 가능성 없다`, 日銀 부총재
- 日 자동차 `빅3` 전기차 놓고 `동상이몽`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한중일 FTA관련 한중일 3국 경제각료회의 개최
- 제1회 성장전략회의 개최
- 변제유예기업에 신보증제도 도입
- 환경관련 기술 특허, 조기심사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한국의 既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,
SERI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□ 금주의 이슈

○ 한국 전기자동차 일본 진출 (10/23)

- 도쿄모터쇼에 참가한 한국 신형메이커 'CT&T'는 2010년에 일본에서 전기자동차를 4천대 판매할 계획 발표. 일본의 절반가격 수준
- 현행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를 이용하면 100만엔으로 구입 가능

○ 포스코, 토요타자동차에서 전시회 개최 (10/22)

- 도요타자동차가 포스코만을 위한 철강재 전시회를 개최. 도요타가 한국 단일 업체를 위해 제품 전시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, 큰 호평
- 전시장에서 자동차강판 제품과 EVI(Early Vendor Involvement·수요처의 제품 개발 단계부터 소재 공급사가 참여하는 협력형태) 기술 전시

○ 日, EU와 FTA 조기체결 추진 (10/22)

- 오카다 가쓰야(岡田克也) 일본 외상이 유럽연합(EU)과 자유무역협정(FTA) 조기체결 방침 공개
- EU와 FTA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박막형 TV와 자동차 등의 수출경쟁력이 한국에 뒤질 것을 우려

○ 한국 D램 '치킨게임' 완승 (10/22)

- 2년 넘게 계속된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완승,
- 최근 3분기(7.1~9.30) 실적을 발표한 대만의 난야테크놀로지는 28억 700만 대만 달러(한화 1천20억원) 규모의 영업적자, 이노테라도 21억 3천만 대만 달러(한화 770억원)의 영업적자

○ 수출 5조엔, 하락폭 대폭 감소, 일본 8개월 연속 무역흑자 (10/22)

- 재무성이 9월 무역수지 5,206억엔의 흑자를 발표, 대아시아 무역수지 개선이 기여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한국 정부, 황장엽 전 서기관 일본 방문 허가 (10/22)
 - 황장엽 전 서기관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해외도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. 이명박 정권의 대일관계 중시 확인
- 日, 北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처리 (10/22)
 - 임시국회에서 북한화물검사법 처리 예정. 민주당 정부가 북한화물검사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야당인 자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북한화물 검사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선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
- 일본은행 부총재 ‘세계경제 더블 딥 가능성 없다’고 발언
 - 니시무라 부총재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재정금융정책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블 딥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
- 日 자동차 ‘빅3’ 전기차 놓고 ‘동상이몽’ (10/22)
 -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이끌 그린카에 대한 경쟁에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, 일본차 빅3가 그린카에 대한 서로 다른 청사진 공개
 - 도요타와 혼다는 가솔린-전기 하이브리드의 발전된 모습을 지향하고 있고, نيسان은 전기로만 달리는 순수한 전기차가 가능하다는 입장
- 일본항공 올해 5천억엔 적자 가능성 (10/22)
 - 일본의 간판 항공사인 일본항공(JAL)이 경기악화에 따른 실적악화로 영업 이익 적자폭이 애초 전망했던 590억엔에서 2천억엔으로 대폭 증가
 - 일본항공의 적자가 커질 경우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채권 금융기관의 증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한중일 FTA관련 한중일 3국 경제각료회의 개최 (10/25)

- 나오시마 경산성 장관 등 한중일 3개국이 아세안+3 정상회담이 열리는 태국 후아힌에서 경제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FTA에 대한 산학관 공동연구 절차 논의
- 내년 상반기 1차 공동연구회가 열릴 전망

○ 제1회 성장전략회의 개최 (10/22)

- 경산성은 22일 산업육성이나 고용확대,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‘성장전략검토회의’를 개최
-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하는 것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 지적

○ 변제유예기업에 신보증제도 도입 (10/22)

- 경산성은 변제유예를 희망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 융자액의 40%를 보증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제도인 ‘조건변경대응보증’을 창설한다고 발표
-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동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므로 일정액의 보증만 가능케 할 방침

○ 환경관련 기술 특허, 조기심사 (10/23, 특허청)

- 특허청은 에너지절감기술과 온난화가스 삭감 등과 관련된 그린기술에 대해 조기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발표
- 조기심사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원 특허에 대해 우선 심의하는 제도
-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상 29개월이 소요되는 1차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단축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한국의 既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’, SERI, 2009.10.16

- 4개의 既체결 FTA 발효로 수출이 1.2~3.2배 증가
 -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FTA체결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무역강도지수가 높아지는 등 뚜렷한 효과
- 체결된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
 -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 관측
 - 2004년 한·칠레 FTA 이후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이후 중·칠레, 일·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2008년 전년 대비 1.6%포인트 하락
 - 현재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가 논의 단계에 있지 않으나, 한국은 협정을 체결해 중국·일본보다 유리한 상황이어 선점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 시장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경쟁하는 완전 경쟁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효과는 더 클 것
- 후발 체결국에 유리한 양허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양허 분야에 미래 최혜국 규정을 삽입하거나 부분재고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
 -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FTA 추진 정책과 협상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세에 따라 불리할 경우 추가적인 부분 협상을 통해 대응
- 한-중-일 FTA가 한-일, 한-중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한국의 GDP 증가, 후생 증가, 수출 증가 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